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목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삼일 하나님

성경: 마 28:19, 고후 13:14, 계 1:4-5, 엡 4:6, 골 1:27, 요 14:20, 17

- I.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계시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 — 시 86:10, 사 45:5, 고전 8:4.
- II.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일(三一), 셋-하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 마 28:19.
- III. ‘삼일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신성한 삼일성’은 주로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바로 신격의 주된 속성이다 — 마 28:19, 고후 13:14, 계 1:4-5.
- IV.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히 동시 존재하신다.
 - A.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하나님이다 — 벧전 1:2, 엡 1:17, 히 1:8, 요 1:1, 롬 9:5, 행 5:3-4.
 - B.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영원하시다 — 사 9:6, 히 1:12, 7:3, 9:14.
 - C.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시 존재하신다 — 요 14:16-17, 엡 3:14-17, 고후 13:14.
- V.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히 상호 내재하신다.
 - A.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서로 안에 곧 상호 내재하신다 — 요 14:10-11, 26, 15:26.
 - B.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상호 내재하시면서 동시 존재하시고, 따라서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 요 5:19, 43, 8:29, 16:32, 눅 1:35, 마 1:18, 20, 눅 4:1, 18상, 마 12:28.
 1. 신성한 삼일성의 셋 가운데는 구별은 있지만 분리는 없다.
 2. 신격의 셋은 동시 존재하시면서 구별은 되시지만, 상호 내재하심으로 하나가 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상호 내재하시면서 동시 존재하신다.
- VI. ‘본질적인 삼일성’은 삼일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삼일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다 — 마 28:19.
 - A.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곧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다 — 사 45:18, 고전 8:6.
 - B. 본질적인 삼일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동시에, 그리고 계승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동시 존재하시며 상호 내재하신다.
 - C.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1.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린다 — 사 9:6.
 2. 마지막 아담이신 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
 3. 주님은 그 영과 주 영이시다 — 고후 3:17-18.

VII. ‘경륜적인 삼일성’은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삼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다 — 계 1:4-5.

- A. 경륜적인 삼일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연속되는 세 단계 혹은 세 시기로,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 안에서 일하신다.
- B.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성취하셨으며, 그 영은 아들께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신다 — 엡 1:4-5, 7, 13.
- C.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경륜적으로 셋이시지만, 경륜적인 삼일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여전히 하나이다 — 요 10:30, 17:21, 23, 마 3:16-17, 엡 1:4, 6-7, 13.
- D. 신성한 경륜이 경륜적인 삼일성에 의해 수행되는 동안에도, 신격 안의 셋이 영원히 동시 공존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VIII. 신성한 삼일성의 셋 모두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 A.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엡 4:6), 아들도 우리 안에 계시며(요 14:20, 골 1:27, 고후 13:5), 그 영도 우리 안에 계신다(요 14:17).
- B. 비록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모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단지 한 분만 계신다고 느낀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분이 삼일 하나님이다.

IX.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이다. 즉 삼일 하나님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 고후 13:14.

- A. 신성한 경륜의 성취는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에 의해 이루어진다 — 엡 1:3-23, 3:14-21.
 - 1.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계획과 안배이다 — 엡 1:5, 9-11.
 - 2.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안배에 따라 분배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 엡 3:14-17상.
 - 3. 신약에서 하나님에 관해 언급된 모든 것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와 관련된다 — 롬 8:3, 11.
- B. 강한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 C.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흐름이다.
 - 1. 원천은 시내 혹은 강의 기원 곧 근원이고, 샘은 원천의 솟아남 곧 표현이며, 시내 혹은 강은 흐름이다.
 - 2. 기원이신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표현이신 아들은 샘이시며, 전달이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흐름, 도달, 적용이다 — 렘 2:13, 요 4:14, 7:37-39, 계 22:1.
 - a.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수의 원천으로 언급하신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샘물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 영은 생명수의 흐름이자 강이다.
 - b. 아버지는 원천이자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으로서 근원을 표현하는 샘이다. 이 과정, 이 샘은 흐름을 가져오는데, 이 흐름이 삼일 하나님의 도달하심이자 적용이신 그 영이다.

D.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신성한 삼일성이 조직 신학의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증명해 준다.

X.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안다 — 요일 1:5, 2:27, 4:16, 5:11-12.

- A. 성취자이자 수단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집행자이자 적용이신 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의 기원자이자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 엡 2:18.
1. 위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간다.
 2.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거둬나게 하시어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 B. 삼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 요일 4:13-15.
- C. 우리는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누림을 통해 삼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 요일 2:27, 4:4.
- D.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누림에는 초점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 곧 하나님-사람이 되셨으며, 이 하나님-사람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 — 요일 2:9-10, 13-14, 고전 15:45하.
- E. 기름 바름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 요일 2:20, 27.
- F.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노선 안에 있고 생명의 성장의 과정 안에 있어야 한다. 생명이 더욱더 자랄수록,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을 더욱더 관심할 것이다 — 요일 2:13-1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삼일 하나님

하나님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는 데 있어서 신성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

성경 육십육 권의 계시 전체에 의하면 신성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하나님의 분배, 즉 하나님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강한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은 셋-하나이셔야 한다.

기원이신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표현이신 아들은 샘이시며, 전달이신 그 영은 흐름이시다. 흐름이신 그 영은 삼일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그분의 도달하심이요 적용이시다. 원천은 흐름 혹은 강의 기원이자 근원이고, 샘은 원천의 드러남과 표현이며, 시내 혹은 강은 흐름이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믿는 이들 안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이시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 영은 흐름 곧 생명수의 강이시다. 아버지는 원천이시자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으로서 근원을 표현하는 샘이시다. 이 과

정, 이 샘은 흐름을 가져오는데, 이 흐름이 삼일 하나님의 도달하심이자 적용이신 그 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 셋-하나이심을 보여 준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셋-하나이신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은 근원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즉 아들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은 아버지의 사랑을 동반한 아들의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은 세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의 세 단계이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한 하나님의 세 단계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신성한 삼일성이 조직 신학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고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영원한 동시 존재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의심할 바 없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벧전 1:2, 엡 1:17), 아들도 하나님이며(히 1:8, 요 1:1, 롬 9:5), 그 영도 하나님이다(행 5:3-4). 그분들은 세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고전 8:4, 사 45:5, 시 86:10)이시지만, 또한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해 준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영원하시고(사 9:6), 아들이 영원하시고(히 1:12, 7:3), 영이 영원하시며(히 9:14), 그분들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이 두 절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그 영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신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아버지께 우리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여기에 아버지와 그 영과 아들 그리스도가 언급된 것은 이 세 분이 모두 동시에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을 다시 보여 준다.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말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이미 언급하였는데, 이 구절도 신성한 삼일성의 셋이 동시에 존재하심을 보여 준다.

신성한 삼일성의 영원한 상호 내재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관계는 그분들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실 뿐 아니라 상호 내재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와 영 안에서 존재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와 영 안에서 존재하시며, 영은 아버지 안에서와 아들 안에서 존재하신다. 신격의 셋이 이렇게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상호 내재’라고 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셨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공존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내재가 있다. 신격의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동시에 존재하시며 상호 내재하신다.

본질적인 삼일성

본질적인 삼일성이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삼일 하나님의 본질을 말한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다(사 45:18하, 고전 8:6상). 본질적인 삼일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동시에, 그리고 계승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며 상호 내재하신다. 거기에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가 없다.

경륜적인 삼일성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경륜적으로 그분은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마 28:19, 고후 13:14)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정적 안배, 하나님의 경륜에서 아버지는 첫 단계를 취하시고, 아들은 둘째 단계를 취하시며, 그 영은 셋째 단계를 취하신다. 아버지는 목적하셨고(엡 1:4-6), 아들은 성취하셨으며(7-12절), 그 영은 아들이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신다(13-14절).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경륜 안에서의 연속적인 과정 혹은 계승이다. 본질적인 삼일성이 삼일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그분의 본질을 말하는 데 반해, 경륜적인 삼일성은 그분의 움직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말한다. 신성한 삼일성의 존재를 위한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의 계획을 위한 필요도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륜의 첫 단계를 성취하셨지만, 그분은 이것을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엡 1:4-5) 그 영과 함께 하셨다. 이 계획이 세워진 후에 아들께서 오셔서 이 계획을 성취하셨지만, 아들은 이것을 아버지와 함께(요 8:29, 16:32) 그 영에 의해(눅 1:35, 마 1:18, 20, 12:28) 하셨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아들이 성취하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셋째 단계로 그 영께서 오셔서 적용하시지만, 그분은 아들로써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요 14:26, 15:26, 고전 15:45하, 고후 3:17). 이렇게 해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경륜이 수행되는 동안에,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존재, 곧 삼일성이 영원히 동시 공존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님

신성한 삼일성의 셋 사이에 구별은 있지만 분리는 없다. 아버지는 아들과 구별되시고, 아들은 그 영과 구별되시며, 그 영은 아들이나 아버지와 구별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께서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분들께서 상호 내재, 즉 서로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삼일성의 셋은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구별되시지만, 그분들의 상호 내재는 그분들을 하나로 만든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상호 내재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시므로 구별은 되시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아들은 결코 아버지를 떠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요 5:19).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요 5:43),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8:29, 16:32).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다(요 14:10-11). 이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에게서 나셨고(눅 1:35, 마 1:18, 20) 모든 것을 그 영에 의해 하셨다(눅 4:1, 18상, 마 12:28).

성경은 또한 아들이 아버지이심을 계시한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 그의 이름은 ...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한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이신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또한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이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요 10:30)이시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아버지를 보았고, 그분을 알 때 아버지를 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또한 아들(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계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마지막 아담은 물론 육체 되신 주 예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영은 물론 성령이시다. 성령 외에 다른 생명 주시는 영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주님은 육체가 되시어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나중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중점을 확증한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다른 보혜사, 즉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 오실 실재의 영이 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17절에서 주님은 실재의 영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그분은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17절에 있는 실재의 영이신 ‘그분’이 18절에 있는 주님 자신이신 바로 ‘나’가 되신다. 주님은 사실상 “그분께서 오시면 내가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요, 내가 그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은 주 예수님이시고, 주 예수님은 성령이시다. 또한 17절에서 주님은 “실재의 영...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시고, 20절에서는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죽고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은 물론 주 예수님이시고, 그 영은 물론 성령이시다. 이 구절은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해 준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자 주님이신 그 영이시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셋이 아닌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분들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신다.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계시는 삼일 하나님

우리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셋-하나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신약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다(엡 4:6, 골 1:27, 요 14:17).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체험에서는 우리 안에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고 느낀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한 분이 삼일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 신성한 삼일성에는 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같은 신성한 존재의 총합이다. 민족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성한 삼일성의 인격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고후 13:13)에 참여하여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 곧 하나님, 어린양, (생명수로 상징된) 그 영께서 영원토록 (보좌의 권위로 암시된)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어떻게 분배하시는지를 묘사한다.

그 어떤 사람도 신성한 삼일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기

록된 것을 다만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한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신다는 것에 인상을 받도록 다만 이 위대한 진리에 관해 신약에 있는 신성한 사실들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삼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우리의 머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놀라운 분배를 체험하고 누리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복의 중점, 11-28쪽)*

삼일 하나님과 신성한 삼일성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삼일 하나님과 신성한 삼일성의 차이를 보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신성한 삼일성은 주로 신격의 주요 속성, 곧 하나님께서 삼일이심을 가리킨다. 신성한 분배는 삼일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신성한 삼일성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반면에, 신성한 삼일성은 신격의 주요 속성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을 가리키며, 그가 신실하다는 것은 그의 미덕인 신실함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고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삼일성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신다.

신약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계시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또한 아버지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구절이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운행하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용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신격의 삼일성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격의 삼일성을 체험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셋은 세 인격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삼일성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성한 삼일성은 신격의 가장 강한 속성이다. 그분의 신실함과 사랑과 온화함 등의 속성은 이 속성만 못하다. 신성한 인격의 가장 뛰어난 속성은 그분의 삼일성이다. 그분의 삼일성은 오로지 그분의 인격으로만 조성되고, 그분의 인격은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있다.

이것이 고대의 신학자들이 삼일성의 본질을 묘사하기 위해 ‘위격(hypostasi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이다. 이 단어는 ‘아래’를 의미하는 ‘후포(hupo)’와, 밑에서부터 지탱해 주는 실질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스터시스(stasis)’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이다. 위격(hypostasis)은 단수이고, 위격들(hypostases)은 복수이다. 그러므로 위격(hypostasis)이라는 단어는 밑에서부터 지탱해 주는 실질적인 본질을 의미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의 신격의 조성을 가리킨다. 신학에서 위격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점차 인격들(persons)로 바뀌었다. 이것이 웹스터 사전에서 ‘하이포스터시스(hypostasis)’의 여러 의미 중 하나가 ‘인격’으로 되어 있는 이유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정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이 삼일 하나님의 조성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는 삼일 하나님의 조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여 그분의 조성을 우리의 조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장로 훈련, 3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109-111쪽)*